

李衡祥 編纂 「家禮」 관련서의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Garyeo Books
Compiled by Lee Hyung-sang

禹 秦 雄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緒 言 | 4.3 「家禮訓蒙」 |
| 2. 李衡祥의 一生 | 4.4 「家禮圖說」 |
| 3. 朝鮮時代 「家禮」의 受用과
「家禮」書의 編纂 | 4.5 「家禮或問」 |
| 4. 李衡祥 編纂 「家禮」 관련서의
書誌的 分析 | 4.6 기타 「家禮」 관련서 |
| 4.1 「家禮便考」 | 5. 引用篇目 分析 |
| 4.2 「家禮附錄」 | 6. 結 言 |
| | <참고문헌> |

< 초 록 >

본고에서는 李衡祥이 편찬한 「家禮」書에 대해 서지적으로 살펴보고, 「家禮」書 편찬의 동기와 시·공간적 배경, 引用篇目에 나타난 특징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家禮」書의 편찬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지식인들 사이에 「家禮」연구가 활발했던 지역인 영천, 은거지이자 학문의 장소인 「浩然亭」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함께 오랜 시간 그의 학문적 의지와 집념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家禮」書는 완성된 이후 후손, 후학들에 의해 여러 번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간행이 시도되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家禮便考」와 「家禮訓蒙」에 수록된 引用篇目에는 다양한 주제의 문헌이 포함되어 있어 그의 폭넓은 학문관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여러 문헌과 학설을 고증하면서 「家禮」에 대해 실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두 책에 수록된 인용편목으로 보아 「家禮訓蒙」을 편찬한 1708년 이전부터 상당한 양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要語: 李衡祥, 「家禮」, 浩然亭, 「家禮便考」, 「家禮訓蒙」, 引用篇目, 引用書目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2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bibliographically dealt with *Garyeo*(家禮)books of Lee Hyung-sang (李衡祥), we also tried to analyse the backgrounds of compiling, time period, list of cited books so on.

Compiling of *Garyeo*(家禮)books is achieved with active communication of contemporary scholars at Hoyeon pavilion(浩然亭) in Youngcheon(永川) area of Gyungsang provinces. The books were also the outcome of Lee's strong will and tenacity for learning.

Despite of his passion and several revision, *Garyeo*(家禮)books didn't published in public in the end. We could know Lee's extensive learning and subdiscipline by the cited books included in *Garyeopeongo*(家禮便考), *Garyehoonmong*(家禮訓蒙) range over various theme.

Lee tried to search far and wide various book and theory, setting up lots of argument about *Garyeo*(家禮) as well. We could know that he also has had lots of related books personally, comparing the two books.

Key words: Lee Hyung-sang, *Garyeo*, *Garyeo* books, Hoyeon Pavilion, *Garyeopeongo*, List of Cited Book

1. 緒 言

李衡祥(1653-1733)은 孝寧大君의 11世孫으로 肅宗朝에서 英祖朝初에 활동한 정치인이자 성리학자이면서 실학자로, 당시 정치·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방 수령으로서의 많은 업적과 함께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는 20대 중반에 과거에 급제하여 왕족의 후손이라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관료로서 비교적 순탄하게 권력과 명예를 영위할 수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 관료로서 재직할 기간은 약 12년에 불과하다. 12년 중에서도 등용 후 처음 4년만 내직에 있었고, 나머지 8년간은 불연속적으로 성주, 전주, 경주, 제주 등 대부분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지방의 각종 악습을 없애고,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는 등 부임하는 곳마다 많은 명성과 치적을 남겼다.

그는 관료로 재직할 기간인 12년 동안의 정치 활동을 제외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 말년까지 약 40여년 동안은 주로 부모 봉양과 저술 활동, 자녀 교육, 후학 양성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禮學, 樂學, 地理學 등 다방면에 걸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48세인 1700년부터는 경북 영천에 浩然亭을 지어 살면서 후학 양성과 저술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家禮」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家禮」 관련 각종 문헌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방대한 양의 「家禮」를 편찬하여 그 실물이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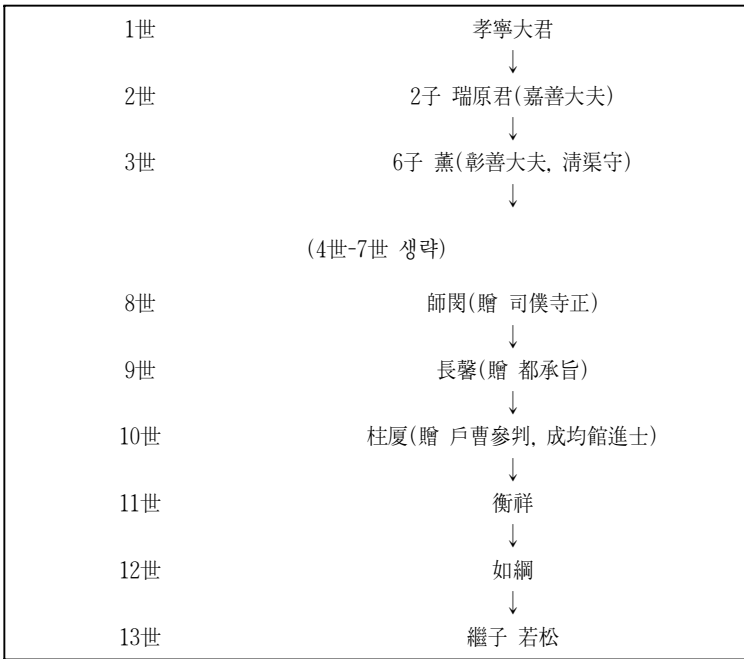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이형상이 편찬한 「家禮便考」, 「家禮附錄」, 「家禮或問」, 「家禮圖說」, 「家禮訓蒙」 등의 「家禮」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家禮」를 편찬의 동기와 시·공간적 배경과 引用篇目에 나타난 특징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李衡祥의 一生

이형상은 조선 왕조의 後孫으로 孝寧大君의 11世孫이다. 그의 字는 仲玉, 號

는 瓶窩 또는 順翁이며, 李柱廈¹⁾와 坡平 尹氏 世耆의 長女 사이에 孝宗 4年(1653) 仁川에서 2男 3女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인은 恩津 宋氏로 通德郎 宋之奎의 딸이자 司僕寺判官 宋錫福의 손녀이다.

<표 1> 李衡祥의 直系圖



유년기에 그는 독서에 관심이 많았고, 문장을 짓는 제주도 남달라 늘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4-5세에는晝夜로 부모님의 잠자리를 보살피는 것을 보고 장차 우리 집을 번창시킬 아이라고 하였다.²⁾

8세(1660년)에는 『史略』, 『通鑑』, 『唐韻』, 『李太白詩』를 읽었으며 11세(1663

1) 同知義禁府事 五衛都總府 副總管을 지냄.

2) 『瓶窩先生文集』 卷18 <附錄> 行狀. “自四五歲 已儼然若成德人 每於味爽 立侍親枕傍 參判公亟稱曰 異日昌吾門者 必此兒.”

년)에는 『讀東史記』을 직접 지어 마을 어른에게 칭찬을 받은 것으로 보아³⁾ 그는 어려서부터 상당한 글재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經書와 禮書의 공부에 열중하였으며, 17세(1669년) 10월 27일에는 通德郎 恩津 宋氏 之奎의 맏딸과 결혼하였다.

22세(1674년) 7월 16일에는 長男이 태어났으며, 자녀로는 4남 2녀를 두어 長子는 如綱, 次子는 如沆, 如晟, 如迪이다. 長女는 正郎 金徵慶, 次女는 吳命運에게 出家하였고, 如克은 側室에서 태어났다. 如綱의 繼子는 若松이며, 如沆은 若松, 志松, 後松, 晚松과 2女를 낳았고, 如晟은 齊松, 友松, 惟松, 期松과 1女를 낳았다.⁴⁾

이형상은 25세(1677)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28세(1680)에 文科 12인으로 뽑혀 承文院 副正字로 처음으로 등용되어 초기 몇 년은 內職⁵⁾으로 역임하였으나 대부분은 外職⁶⁾으로만 역임하였다.

-
- 3) 『瓶窩先生文集』 行狀. “癸卯 撰讀東史記 有童伴傳示好學長老 後隨童伴 往長老家 長老起而揖曰 殆非宿儒所及.”
- 4) 『瓶窩先生文集』 行狀. “公諱衡祥 字仲玉 瓶窩號也 系出濬源 太宗大王第二子孝寧大君諡靖孝諱補 有讓儲位至德 公其十世孫也(中略)癸巳五月二十三日亥時 舉公於仁川疏巖村 … (중략) … 有四男二女 長如綱 次生員如沆 生員如晟 進士如迪 女長適金徵慶 文科正郎 次適吳命運 如克 側室男也 如綱繼子若松 如沆生若松 志松 後松 晚松及權淑徵 安就三妻 如晟生齊松 友松 惟松 期松及權復仁妻 如迪繼子晚松 二女 權世錫 金廷鳳妻.”
- 5) 29세(1681) 承文院副正字
30세(1682) 栗峰道察訪
32세(1684) 承文院副正字, 龍驤衛副司勇, 承院副正字
33세(1685) 承文院正字, 承文院著作, 奉常寺直長兼承文院正字, 奉常寺直長兼承文院博士, 成均館典籍, 司憲府監察, 戶曹佐郎, 兵曹佐郎
34세(1686) 兵曹佐郎, 廣州府經歷 등
- 6) 35세(1687) 星州牧使
37세(1689) 全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錦山郡守
38세(1690) 清州牧使, 東萊府使
39세(1691) 楊州牧使 兼 楊州鎮兵馬僉節制使, 楊州鎮兵馬僉節制使
40세(1692) 慶州府尹, 楊州牧使
41세(1693) 羅州牧使
45세(1697) 安州牧使
47세(1699) 羅州鎮兵馬僉節制使, 羅州牧使兼 羅州鎮兵馬僉節制使, 慶州鎮兵馬節制使, 慶州府尹兼 慶州鎮兵馬僉節制使
49세(1701) 濟州牧使兼 濟州鎮兵馬水軍節制使, 濟州鎮兵馬水軍節制使

李衡祥의 인생편력과 학문적 역량을 비추어 볼 때 짧은 관직생활과 관직도 주로 외직으로 전진하게 된 것은 그의 出處觀과 政爭의 현실 속에서 특정한 政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색깔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⁷⁾

48세(1700년)에는 慶州府尹에서 물러나 영천에 浩然亭을 지었다. 그는 일찍이 先祖인 孝寧大君의 神位가 상주의 북쪽 聞慶에 있었기 때문에 落南의 장소로 尙州를 정하였으나 아들 如沆과 如迪, 長孫은 尙州로 보내고, 자신은 영천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慶州府尹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향할 때에 永川, 慶州의 儒林들이 간곡히 귀향을 만류하여 뿌리칠 수 없었고, 南人들만 살고 있는 영천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西人의 계보에 들어 있으나 西人系를 비판하여 당시 지배층인 서인에게 소외당하여 畿湖로 들어가도 시골에 은거해야 할 형편이었기에 이 지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⁸⁾

지방관 재임 중 그는 각종 폐습을 시정하는 教化에 힘썼으며, 민생에害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등의 정치·사회적 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49세(1701년)에 부임된 濟州牧使 재직 시에는 濟州 三姓⁹⁾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게 하였고, 同姓간의 婚, 간통, 남녀혼욕을 금지시켰다. 또 해녀들이 벗고 일하는 풍속을 없애고, 淫祠를 더욱 단속하여 神堂 129개와 사찰 5개를 불사르고 이에 종사하던 수천 명을 귀농시켰다.¹⁰⁾

이형상은 제주목사를 그만 둔 이후 잠시 靈光郡守를 역임하고,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사양하였고, 浩然亭에 거처하면서 후학 양성과 저술활동에 매진하다가 81세(1733년)에 생을 마치게 된다.

死後 墓는 廣州郡 退村面에 모시고, 永川 城南書院과 濟州 永惠祠, 橘林祠에

53세(1705)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靈光郡守兼 全州鎭兵馬節制使

56세(1708) 慶源都護府使

7) 오용원, 「瓶窩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第37輯(2005), 181.

8) 權寧徹, 『瓶窩 李衡祥 研究』(서울: 범우사, 1978), 32-33.

9) 高·夫·梁氏.

10) 『瓶窩先生文集』 卷18 <附錄> 行狀. “辛巳冬 除濟州牧使 至則思有以革耽羅陋俗 修三邑聖廟 選有儒名者 定訓長課學<中略>神堂一百二十有九及二刹 一時火之 投佛像于海 近千巫覡 皆焚其案而歸之農.”

配享되었으며, 1796年(正祖 20)에는 清白吏에 선정되었다.

이형상은 일생 동안 禮學, 樂學, 地理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방대한 양의 책을 저술하였다. 이형상이 지은 저서의 총 편수는 자신이 쓴 『覆瓿類目』에 3,886首의 詩를 지었고,¹¹⁾ 『靜安餘嘖』¹²⁾에는 62종의 저술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8년 조사한 『瓶窩著書目錄』¹³⁾에 의하면 性理學書 13종, 禮樂書 11종, 譜書 17종, 地理書 9종, 歷史書 3종, 奏議書 2종, 日記文 3종, 雜書 8종, 曆書 1종, 文集 5종, 遺墨 2종, 目錄書 2종, 기타 19종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3. 朝鮮時代 「家禮」의 受用과 「家禮」書의 編纂

『朱子家禮』는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시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는 禮學의 시대라는 17세기를 지나면서 조선 예학의 중심부에 자리 잡는다.¹⁴⁾

우리나라에서 「家禮」는 四書五經에 못지않게 존중되었는데, 이에 따라 「家禮」의 수용은 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조선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⁵⁾

14세기에 성리학과 같이 도입된 「家禮」는 15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朱子家禮」의 보급과 실천에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16세기에는 사림의 본격적 등장과 성리학의 발전에 따라 「朱子家禮」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동반되었다. 「朱子家禮」가

11) “辛丑四月以上三千八百八十六首.”

12) 1733年(英祖 9)에 기록한 자신의 저술목록으로, 보물 652-9호이다.

13) 文化財管理局, 『瓶窩著書目錄』(서울: 문화재관리국, 1978).

14) 張東宇, “『朱子家禮』의 수용과 보급과정 - 東傳版本을 중심으로 -,” 『國學研究』 第16輯(2010), 184-185.

15) 宋熹準, “永川·慶州 地域 禮學者들의 『朱子家禮』 探究와 그 施行,” 『東洋禮學』 第5輯(2000), 36-37.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조선사회는 「朱子家禮」의 보급 및 실천,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확충 등 주자예학을 철저히 소화한 바탕 위에서 주자예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예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16세기에 들어서는 성리학이 최고도의 정점에 도달하였고, 17세기에 이르러 성리학의 학문적 개화와 동시에 禮學이 발흥하게 됨에 따라 이 방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으며, 17세기에는 禮를 둘러싼 문제로 당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쟁의 성격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禮訟인데 그 중심부에 놓여있는 것이 「家禮」이며,¹⁷⁾ 이를 반영하듯 「家禮」 연구가 상당히 유행하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家禮」 주석서는 약 36종으로 그 중에 實傳한 것을 빼면 대략 30여종이 된다.¹⁸⁾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이형상도 자연스레 禮學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특히 그가 사는 영천이라는 지역적인 배경은 그를 더욱 더 「家禮」에 심취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형상이 거주한 영천 지역에서는 18세기에 타 지역에 비해 많은 「家禮」서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鄭碩達(1660-1720),¹⁹⁾ 鄭萬陽(1664-1730),²⁰⁾ 鄭重器(1685-1757)²¹⁾ 등 迎日 鄭氏 가문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家禮」를 탐구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었으며, 당시 예학자들 간에 학문적 교류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²²⁾

조선시대에 간행된 「家禮」는 丘濬의 「文公家禮儀節」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6) 權鎮浩, “영남학파의 「朱子家禮」 수용 양상 - 東巖 柳長源의 「常變通攷」를 중심으로 -, ” 「國學研究」 第16輯(2010), 470.

17) 宋熹準, 36-37.

18) 宋熹準, “18세기 永川 地域의 「家禮」註釋書에 대하여,”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28輯(2000), 254.

19) 1705년 「家禮或問」 編纂.

20) 1710년 「家禮附錄」 編纂.

21) 1752년 「家禮輯要」 編纂.

22) 宋熹準, “18세기 永川 地域의 「家禮」註釋書에 대하여,” 256.

- 卷1 通禮-祠堂, 深衣制度, 司馬氏居家雜儀
- 卷2 冠禮-冠, 笄
- 卷3 婚禮-議婚, 納采, 納幣, 親迎, 婦見舅姑, 廟見, 壻見婦之父母
- 卷4 喪禮-初終, 沐浴, 襲, 奠, 爲位, 飯哈, 靈座, 魂帛, 銘旌, 小斂, 大斂, 成服, 朝夕哭奠, 上食, 弔奠賻, 聞喪, 奔喪
- 卷5 喪禮-治葬, 遷柩, 朝朝, 奠賻, 陳器, 祖奠, 遣奠, 發引, 及墓, 下棺, 祀后土, 題木主, 成墳, 反哭
- 卷6 喪禮-虞祭, 卒哭, 祔, 小祥, 大祥, 禫, 居喪雜儀
- 卷7 祭禮-四時祭, 初祖, 先祖, 禴, 忌日, 墓祭

4. 李衡祥 編纂 「家禮」 관련서의 書誌的 分析

4.1 「家禮便考」

「家禮便考」는 「家禮」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 쓴 필사본이다.

전체 14卷 14冊이며, 평균적인 책의 크기는 세로 34×22cm이다. 형태적인 특징은 四周雙邊으로 된 邊欄에 半匡의 크기가 세로 23×17cm이며,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의 관식이 일정한 하나의 목판에서 찍어낸 종이에 界線을 그려 넣었으며, 한 면은 10行 21字로 일정하다. 각 책별 印面의 상태로 보아 같은 板으로 14책 전부를 찍었으며, 이로 인해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板이 마모되어 인쇄 상태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家禮便考」第1冊의 앞표지 裏面에는 다음과 같이 正祖 5年(1781) 이후에 작성된²³⁾ 「瓶窩先生著述目錄」이 수록되었다.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 기록된 이 목록은 모두 46種 108卷에 달한다. 그 중 「家禮」書는 「家禮便考」, 「家禮附錄」,

23) 「瓶窩先生著述目錄」이라는 제목의 아래에 1781년에 “奎章閣에 문집을 찍어서 올렸다”는 기록이 있음(“有文集九卷刊行于世 正廟辛丑自奎章閣印上”).

「家禮或問」, 「家禮圖說」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전 전해지고 있는 책과 비교해 보면 冊數가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²⁴⁾

<표 2> '瓶窩先生著述目錄' 墨書記錄

「瓶窩遺稿」, 9卷	「公私譜略」, 1卷	「和陶錄」, 1卷
「瓶窩隨筆」, 2卷	「虛實紀異」, 1卷	「物則篇」, 1卷
「家禮便考」, 14卷	「暗竇索班」, 1卷	「聖典錄」, 1卷
「家禮附錄」, 19卷	「經書類抄」, 1卷	「毓慶錄」, 4卷
「家禮或問」, 7卷	「閩範選英」, 1卷	「文廟志」, 1卷
「家禮圖說」, 1卷	「深衣便考」, 1卷	「慎終錄」, 1卷
「樂學便考」, 3卷	「深衣圖說」, 1卷	「追遠錄」, 1卷
「樂學拾零」, 1卷	「鄉飲酒禮」, 1卷	「南屨錄」, 1卷
「三才一攬」, 4卷	「日本國志」, 1卷	「闢異錄」, 1卷
「三才圖說」, 1卷	「女真國志」, 1卷	「廓如錄」, 1卷
「黃堂政要」, 1卷	「蒙古國志」, 1卷	「文周衍」, 2卷
「大學講義」, 1卷	「江都志」, 2卷	「井蛙談」, 1卷
「史海傾蠡」, 1卷	「警兒說」, 1卷	「三綱錄」, 1卷
「經書採綱」, 1卷	「鈞牧對」, 1卷	「遂明錄」, 1卷
「周易講義」, 4卷	「耽羅志」, 1卷	
「玉岡蒸沙」, 2卷	「四書解」, 3卷	

「家禮便考」의 第1冊은 84張으로 序文(1張)-凡例(1張)-引用篇目(15張)-本序(4張)와 本文 卷1(73張)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별 구성은 卷1-2 通禮, 卷3 冠禮, 卷4-12 喪禮, 卷13-14 祭禮이며 권별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卷1 通禮1 祠堂

卷2 通禮2 深衣制度, 司馬氏居家雜儀

卷3 冠禮 冠, 笄

婚禮 議婚, 納采, 納幣, 親迎, 婦見舅姑, 廟見, 壻見婦之父母

24) 개인 소장의 현전본은 「家禮便考」, 14卷 14冊, 「家禮附錄」, 3卷 3冊, 「家禮圖說」, 1冊, 「家禮或問」, 18卷 18冊으로 되어 있다.

- 卷4 喪禮1 初終
- 卷5 喪禮2 靈座, 小斂, 大斂
- 卷6 喪禮3 成服 上
- 卷7 喪禮4 成服 中
- 卷8 喪禮5 成服 下 朝夕哭, 吊, 問喪
- 卷9 喪禮6 治奠
- 卷10 喪禮7 遷柩, 遣奠, 發引, 及墓, 反哭
- 卷11 喪禮8 虞祭, 卒哭, 祔, 小祥
- 卷12 喪禮5 大祥, 禫, 巨喪雜儀, 致賻奠狀, 謝狀, 慰人疏, 答人疏, 慰人啓狀, 答人啓狀
- 卷13 祭禮1 四時祭
- 卷14 祭禮2 初祖, 先祖, 禩, 忌日, 墓祭

乙巳年(1725)에 浩然亭에서 쓴 序文에 의하면,

“『文公家禮』는 당시에 완성되지 못하여 後에 사람들이 논의하여 다시 고친 것이 많다 … (中略) 때면 강의를 할 때 의견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논쟁이 많아 여러 문헌을 인용하였다.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하여 丁亥年(1707)에 처음으로 편찬을 시작하였고, 禮書를 수집하여 모아 각 조항의 아래에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私家의 便考를 위해서이며, 丁亥年 후 18年(1725) 李衡祥이 永川의 浩然亭에서 썼다.”²⁵⁾

라고 하였다.

『家禮便考』의 序文에서 언급한 내용대로라면 이형상은 이전부터 『家禮』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오던 중, 1707년(55세)부터 여러 관련 문헌을 두루 참고하여 본격적으로 『家禮』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25) 『家禮便考』家禮便考序. “文公家禮…當時未及完成後論亦多改定…(中略)…每當講義輒岐而多訟…(中略)…丁亥爲始乃敢搜輯禮書以類於各條之下蓋爲私家便考計也(省略)…(中略)…丁亥後十八年乙巳完山李衡祥書于永陽之浩然亭.”

이형상이 『家禮』書의 편찬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의 청년 시절에 보았던 당시 정치적인 대립 즉, 17세기에 禮訟 문제를 둘러싼 당파싸움의 영향에 의한 禮學에 대한 잠재적인 학문적 관심과 탐구 의욕이 있었을 것이라 보여진다. 동시에 이 시기에 예학의 발달은 학자들 간에 『家禮』書 저술을 유행시켰으며, 이형상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文公家禮』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또한 序文에 언급된 “私家の 편의를 위해서”라는 내용은 개인적인 학문적 열정, 욕심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나 후학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家禮』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예학 연구가 유행한 시대적 배경과 지식인들 사이에 『家禮』 연구가 활발했던 지역인 영천, 그리고 그의 은거지이자 학문 연구의 장소였던 ‘浩然亭’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비롯된 그의 학문적 의지와 집념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하겠다.

『家禮便考』는 완성된 이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여러 번 수정과 보완을 거쳤다. 이형상의 제자인 鄭燁(1695-1755)의 行狀을 보면, 이형상의 『家禮便考』가 당대에 완성되어 간행되지 못하고 한 세대 후 사람들에 의해 수정을 거쳐 정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형상의 4남 李如迪과 손자 李晚松,²⁶⁾ 鄭燁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수정·보완을 주도한 사람은 鄭燁이다. 그는 『家禮』에 오랫동안 공부하여 의문점을 이형상에게 물었고 예학에 밝았다. 『家禮』 등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한 책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후 정업의 조카 鄭忠弼(1725-1789)에 의해 최종 완성을 보게 된다.²⁷⁾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家禮便考』는 손자인 李晚松을 중심으로 하여 간행을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끝내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序文에 이어 凡例에는 5가지의 항목²⁸⁾을 두고 있으며, 범례의 내용을 통해

26) 李衡祥의 손자이며 이형상의 차남 如沆의 넷째 아들이다.

27) 宋熹準, “18세기 永川 地域의 『家禮』 註釋書에 대하여,” 261-262.

28) 一. 本文爲綱大註爲目

一. 先据韻書以解字義雜引經傳以相發明

一. 大註低一字附註低二字引據諸說雙書

一. 本圖別作一冊兼取諸書所圖以博其義

「家禮便考」의 참고를 위해 「家禮圖說」, 「家禮附錄」, 「家禮或問」을 추가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범례의 다음에는 15張에 걸쳐 引用篇目이 수록되어 있다. 인용편목은 다음 장에 별도의 항목을 두어 언급하도록 하겠다.

4.2 「家禮附錄」

「家禮便考」의 附錄에 해당되는 3卷 3冊의 필사본이다.

「家禮便考」의 범례 2항에 나온 기록인 “本書所不及者別爲附錄意義隱微者又爲或問以備參考”에서와 같이 「家禮便考」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序文에서 밝힌 이 책의 저술 동기는 “나는 이미 「家禮便考」를 편찬하였으나 禮를 좋아하는 이들이 상고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찬 당시에 빠진 것들이 많다. 즉 通禮의 承重, 立後, 喪禮의 君賻, 君弔, 葬禮의 報葬, 合葬 등 미급한 부분은 蒙學이 배울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類聚하여 纂集하였고, 이를 ‘附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²⁹⁾고 한다.

序文에 기록된 “後八年甲午(1714)七月 書于芝嶺之寓舍”의 기록으로 보아 본서의 편찬 시기는 家禮와 관련된 여러 인용문헌을 수집하기 시작한 1707년(肅宗 33)부터 8년 후인 1714년(肅宗 40)이며, 장소인 “芝嶺之寓舍”는 이형상이 머문 浩然亭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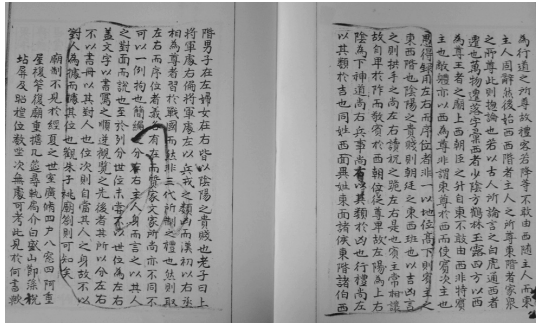
序文의 내용대로라면 「家禮便考」의 편찬 시기는 1707년의 8년 후인 1714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家禮附錄」은 「家禮便考」의 附錄편에 해당하므로 「家禮便考」의 편찬이 완성된 1725년 이후에 이루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³⁰⁾

一. 本書所不及者別爲附錄意義隱微者又爲或問以備參考

29) 家禮附錄序. “余旣作家禮便考好禮之家庶有所考而未及編次於當時者而多如通禮之承重立後喪禮之君賻君弔葬禮之報葬合葬皆人家之所不能免者況如遷葬一節全然不舉此又蒙學之所不容忽爲故而各類聚而纂集名之日附錄槩泛丘氏儀郎爲次本不欲唐突自主以取僭猥之誅覽者恕之 後八年甲午七月 書于芝嶺之.”

본문에는 일부의 단어나 문장을 수정이나 삭제한 흔적이 나타나는데, 글자의 위에 덧칠을 하거나 문장일 경우 전체를 墨書로 표시하고, 상단에는 '刪'이라는 글자를 표기하여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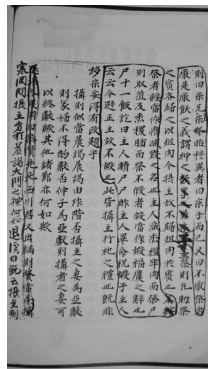
「家禮附錄」만 수정한 것이 아니고 기타 「家禮」書인 「家禮圖說」, 「家禮或問」 등에서도 수정 흔적이 보인다.



「家禮或問」 第29-30張



「家禮或問」 第31張



「家禮附錄」 第60張

<그림 1> 李衡祥 編纂 「家禮」書에 나타난 수정 흔적

- 30) 이 부분과 관련하여 「家禮便考」의 범례에서 언급한 '附錄'이라는 서명이 꼭 「家禮附錄」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 「家禮便考」에 기록된 "瓶窩先生著述目錄"에는 「家禮附錄」이 19卷 (책수를 의미함), 「家禮或問」이 7卷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남아 있는 책은 「家禮附錄」이 3卷 3冊, 「家禮或問」이 18卷 18冊이다.

「家禮附錄」의 형태적인 특징은 책의 크기는 32.5×21.0cm이며, 表紙에는 ‘家禮附錄’의 서명이 있다. 판식은 郢板으로 된 四周雙邊에 필사한 界線이 있다.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2cm, 가로 16cm이며 한 면은 12行 21字이다. 판심 부분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黑魚尾이다.

4.3 「家禮訓蒙」

「家禮訓蒙」은 직계 자손 및 후학들의 편의를 위해 「家禮」 중에서 특히 喪禮에 대한 것을 가려내어 기록한 1책의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30.0×21.5cm이며 본문의 한 면은 대체로 12行 24字이다.

구성은 序文, 凡例, 目錄, 引用篇目, 先儒錄, 本文으로 되어 있으며, 序文에는 “戊子五月之念 瓶窩老翁揮涕而書之”라는 기록이 있는데 戊子年은 1708年(肅宗 34)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형상이 「家禮」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문헌을 수집·편찬하기 시작한 책 중 가장 먼저 완성된 것이다.

본문의 시작 전에는 凡例와 目錄, 引用篇目, 先儒錄이 수록되어 있다.

목록에 나타난 본문의 구성은 治病에서부터 止代哭까지 78항목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항목마다 註를 넣어 자세한 설명을 달아 놓았다.

<내용 목차>

疾病-行禱-書遺言-掃內外-斷指-內外安靜-屬纊-卽絕乃哭-廢牀寢地-復-復衣-哭擗無數-楔齒綴足-立喪主-主婦-護喪-司書司貨-相禮-稱家有無-易服不食-治棺之具-治棺-訃告-遷尸之具-設帷掘坎-陳襲衣-襲衣-奠具-沐浴之具-飯哈之具-君吊-君祔-沐浴-襲-徙尸牀-奠具-爲位之具-設奠-僞位哭-飯哈-卒襲-靈座之具-魂帛之具-銘旌之具-置靈座-重-立銘旌-不作佛事-吊者入哭-小斂之具-環經之具-奠具-括免之具-經帶之具-陳小斂-設奠具-具括免髻-設小斂床-遷襲奠-小斂-憑尸哭-袒括免髻-遷尸牀-奠-哭盡哀代哭-大斂-大斂之具-成殯之具-靈床之具-奠具-陳大斂-設奠具-舉棺

-乃大斂-設靈床-奠-各歸喪次-止代哭

4.4 「家禮圖說」

「家禮圖說」은 「家禮訓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나타낸 1책의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28.0×21.0cm이며 본문의 한 면은 대체로 28行 24字이다.

앞서 언급한 「家禮便考」 범례의 3항에 기록된 “本圖別作一冊兼取諸書所圖以博其義”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 언급한 ‘圖’는 「家禮圖說」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序文과 본문은 「家禮訓蒙」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卷末에 喪禮의 이해를 위해 五服褻冠升數圖, 臣爲君服圖, 本宗五服圖, 五父十母圖, 母重祖孫報服圖, 母黨妻黨外孫甥婿服圖, 妻爲夫黨服圖, 爲人後者爲私親降服圖, 嫁女爲本宗降服圖, 本宗爲爲人後及嫁女服服圖, 妻及妻子服圖, 三殤降服圖, 心喪三年圖, 雜服圖 등의 도표를 수록하였다.

4.5 「家禮或問」

「家禮或問」은 「家禮便考」, 「家禮附錄」, 「家禮圖說」에서 미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18卷 18冊의 「家禮」書 중 가장 많은 분량이다.

책의 크기는 31.7×20.5cm이고, 表紙書名은 ‘家禮或問’이다. 대체적인 판식은 邊欄은 罫板의 四周雙邊에 界線이 있고,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22.3×16.0cm이다. 한 면의 글자 수는 12行 21字이며, 판심 부분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黑魚尾가 보인다. 본문에는 글자 위에 덧칠하여 수정하거나 글자나 문장을 삭제하기 위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각 卷의 구성은 卷1-3 通禮, 卷4 冠禮·婚禮, 卷5-15 喪禮, 卷16-18 祭禮로 되어 있다.

이 책이 언제부터 편찬을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家禮便考』의 序文의 기록과 같이 『家禮或問』 또한 1707년 이후, 즉 『家禮便考』의 편찬 이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家禮便考』의 완성보다 2년 후인 丁未年(1727)에 18책의 편찬을 완성하였다.

序文의 내용 중에는 “『家禮』는 미완성본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의심이 나고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는免할 수가 없어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래서 『家禮便考』, 『家禮圖說』 등에서 논의가 통일되지 않은 것을 뽑아서 만들었고, 1727년 永川 浩然亭에서 썼다.”라는 기록³¹⁾으로 보아 『家禮或問』은 『家禮便考』보다 2년여 쯤 후인 1727년에 저술이 완성되었고, 이 책이 완성된 것과 동시에 家禮書에 대한 모든 편찬을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의 나이는 75세이다.

4.6 기타 「家禮」 관련서³²⁾

4.6.1 「閨範選英」

이 책은 1694年(肅宗 20)에 江都(지금의 江華)에서 子女와 며느리의 가정교육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것을 여러 문헌에서 가려내어 만든 1책의 필사본이다.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책의 크기는 대체로 30.0×20.3cm이다. 邊欄은 郢板의 四周雙邊에 半匡의 크기는 23.0×17.0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2行 20字이다. 관심부분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黑魚尾이다.

序文의 내용 중에는 “자녀와 며느리를 위해 18條의 항목을 속담으로 설명하고, 과거 규범에 대한 언행을 수집하여 책을 만들어 이름을 「閨範選英」이라고 한

31) 『家禮或問』 家禮或問序. “宋孝宗乾道庚寅先生丁祝令人憂作此書爲世大範者 迨今五百五十有八年不幸爲童行所窃至葬日始出當時未及完成後論而多改定若其疑文變節之不免疑晦者 輒岐而多訟便考所以類編也圖說所以模形也取其中論議携貳者作爲或問以爲考據之計而一從家禮次序不拘事理先後覽者恕之 丁未(1727)八月二日書于永陽之浩然亭.”

32) 일반적으로 『家禮便考』, 『家禮附錄』, 『家禮圖說』, 『家禮或問』 등의 李衡祥 編纂 「家禮」書는 학문적으로 비교적 알려져 있으며, 이들 외에 여기서 다루는 것도 「閨範選英」, 「追遠錄」, 「報反儀式」 등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家禮」책이거나 「家禮」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다”³³⁾고 하였다. 책의 내용은 修身, 讀書, 孝親, 忠君, 友愛 등 형제, 친구 등 가정과 밖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예의범절과 ‘居鄉雜儀’, ‘檢束身心之禮’를 추가로 수록하였다.³⁴⁾

저술시기와 관련하여 卷末에는 “時甲戌八秋哉生魄書于 齋谷精舍”라 기록되어 1694年(肅宗 20)에 齋谷精舍에서 저술한 것이다.

4.6.2 「追遠錄」

「追遠錄」은 1724年(景宗 4)에 「家禮」에서 제례 관련 의식과 방법, 절차 등을 뽑아 편찬한 것으로 2冊의 필사본이다.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책의 크기는 대체로 29.5×20.3cm이다. 邊欄은 罫板의 四周雙邊에 半匡의 크기는 22.5×16.3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2行 20字이다. 판심부분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黑魚尾이다.

내용은 答宗姪書, 答外從孫尹弼宗書, 享先本要, 祭義, 祭名, 齋戒, 祭饌, 祭服, 普及儀式序, 家衆敍立圖, 正至朔望俗節每位陳設圖, 儀節, 家禮四時祭陳設圖, 鄙宗四時祭陳設圖, 儀節, 忌祭, 墓祭, 山神祭, 雜儀三條(薦神, 晨謁, 傳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本文의 끝에는 “甲辰閏四月八日 七十二歲翁書于 永陽之浩然亭”의 기록이 있어 72세인 1724년에 永川 浩然亭에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卷末의 7月 12日에 門下生 金近聖이 쓴 跋文에는 “瓶窩가 從姪의 答書, 外從孫의 答書와 함께 「家禮」에 수록된 제례의식에서 필요한 것을 뽑은 것이다”³⁵⁾라

33) 「閨範英選」 閨範英選序. “今觀吾子吾婦吾女 資質之美 性情之純 … (中略) … 凡十八條皆以俗談成說 仍又搜輯 前言往行 繙譯 爲一冊名之曰閨範英選.”

34) ‘居鄉雜儀’는 金誠一(1538-1593)이 향촌 예절에 대해 모아 정리한 것으로, 輩行之等-相見之禮-往還之數-名帖之式-進退之節-迎送之禮-拜揖之禮-道塗之禮-請召之禮-齒位之序-獻酌之禮-勞餞之禮-慶吊之禮-獻遺之禮로 구성됨. ‘檢束身心之禮’는 鄭經世(1563-1633)의 文集 卷2 養正篇에 수록된 12目에 수록된 예절 수양지침서로, 盥櫛-整服-叉手-揖-拜-跪-坐-立-步趨-言語-視聽-飲食으로 구성됨.

35) 「追遠錄」 跋文. “(中略) … 瓶窩門下出示一冊子目曰追遠錄弁之以答從姪書及其外宗孫書

고 하였다.

4.6.3 「報反儀式」

1715年(肅宗 41)에 家禮 의식의 절차와 방법을 기록한 1책의 필사본이다. 맨 앞에 가례의식과 관련된 의복 등의 도상과 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序文 뒤에 “上之四十一年乙未七秋題于永陽寓記”라 기록³⁶⁾되어 浩然亭에서 저술한 것을 알 수 있다.

圖像의 내용은 三代宮廬之圖-殿屋五架圖-厦屋五架圖-大夫立三廟於正寢東圖-祠堂全圖-正至朔日俗節出主櫝前家衆敍立之圖-三代冠服圖-男女盛服圖-祭器圖-叉手圖祇揖圖殿拜圖-揖禮圖拜禮圖 등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通禮-祭禮-齋戒-祭饌-祭服-祭儀-各祭儀式-茶禮(儀節, 陳設圖)-忌祭(陳設圖)-時祭-墓祭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5. 引用篇目 分析

이형상이 「家禮」 관련 문헌의 수집과 함께 본격적으로 「家禮」書の 편찬을 시작한 1707년부터 시작하여 1725년에 완성한 「家禮便考」에는 방대한 분량의 인용편목이 수록되어 있다.

인용편목에는 儒家, 禮家, 史家, 文集, 雜家의 주제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서명의 수를 보면 <표 3>과 같이 儒家 26편, 禮家 57편, 史家 39편, 文集 25편, 雜家 60편이다.

因敍列祭祀儀式一依朱文公家禮其中饌品及所着服色及俗節朔望雜儀等節皆存古禮而從時尚刪其煩而就其要惟以誠之一事爲一冊之大旨其所立言蓋誠 … 先生曰意甚嘉矣書于卷末而歸之可乎余辭以僭猥先生強之遂不敢違 命再拜謹書甲辰七月十二日門下生 金近聖.”
36) 「報反儀式」 報反儀式序. “君重來問祭禮且曰將以爲家式余曰報以禮酬反以心追大法皆在家禮何容別議乃又 … (中略) … 名之曰報反儀式 … 上之四十一年乙未七秋題于永陽寓記.”

<표 3> 「家禮便考」 引用篇目 내용

儒家 26種	周易, 尙書, 毛詩, 春秋, 爾雅, 孝經, 家語, 論語, 大學, 中庸, 孟子, 公子通記, 小學, 正蒙, 伊洛淵源, 心經, 近思錄, 語類, 性理羣書, 大學衍義, 性理大全, 四書章圖, 四書通義, 九經衍義, 理學通錄, 儒先錄
禮家 57種	三禮圖, 周禮, 儀禮, 禮記, 樂記, 烈女傳, 女誡, 開元禮, 通典, 正義, 郊社志, 元陵儀註, 祠享儀, 家祭禮, 時享儀, 祭錄, 家祭儀, 家薦儀, 仲享儀, 家訓, 家祭式, 書儀, 祀先義, 昏儀, 祭儀, 喪紀篇, 冠婚喪祭儀, 宗法, 送終禮, 喪服圖式, 五禮新儀, 家禮正衡, 家禮集說, 家禮會成, 家禮會通, 家禮會要, 家禮會覽, 家禮儀節, 禮輯, 大明會典, 大明集禮, 大明律, 大明儀, 經國大典, 奉先雜儀, 四禮問答, 禮說, 五服沿革圖, 擊蒙要訣, 家禮考證, 家禮輯覽, 疑禮問解, 喪禮備要, 家禮診解, 深衣別集, 深衣便考, 家禮圖
史家 39種	荒史, 考工記, 國語, 左傳, 公羊傳, 穀梁傳, 呂氏春秋, 淮南子, 馬史, 漢書, 白虎通, 繁露, 說苑, 後漢書, 魏書, 晉書, 南史, 北史, 唐書, 新唐書, 唐鑑, 五代史, 綱目, 通鑑, 宋鑑, 胡傳春秋, 通鑑長編, 二王本紀, 通鑑修編, 宋遼金三史, 世說, 宋名臣言行錄, 續名臣言行錄, 明名臣言行錄, 世史類編, 東國通鑑, 東史纂要, 列聖誌狀, 東國名臣言行錄
文集 25種	昌黎集, 柳州集, 白香山集, 陶靖節集, 二程全書, 朱子大全, 朱書節要, 南軒集, 西山集, 三蘇文集, 東文選, 圃隱集, 晦齋集, 退溪集, 蘇齋集, 寒岡集, 東岡集, 西厓集, 栗谷集, 牛溪集, 愚伏集, 芝山集, 旅軒集, 眉叟集, 同春集
雜家 59種	事物記原, 二儀錄, 輿服誌, 律曆志, 風俗通, 歲時記, 荊楚記, 風土錄, 鄴中記, 天中記, 說文, 釋名, 文獻通考, 酉陽雜俎, 古今註, 零陵總記, 古今藝術, 朝野僉載, 太平廣記, 事文類聚, 龍湖手鑑, 茶經, 茶錄, 聞見錄, 筆談, 談錄, 涑水記聞, 后山叢談, 容齋隨筆, 石林燕語, 源流至論, 自警編, 鶴林玉露, 瀛水燕談, 翰墨全書, 蒼梧雜志, 却掃篇, 文昌雜錄, 續齋諧記, 西京雜記, 夢華錄, 香譜, 續事始, 玉燭寶典, 韻府羣玉, 韻會, 一統志, 兩山墨談, 字彙, 四聲通解, 漢語錄, 考事撮要, 筆苑雜記, 藝苑雌黃, 清江小說, 東閣雜記, 鯨鱗瑣錄, 芝峯類說, 谿谷謾筆

「家禮便考」의 인용편목으로 보아 이형상은 經書, 禮書, 歷史書, 法書, 文集 등 다양한 주제의 문헌을 읽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각종 문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지 않았거나 간행된 기록이 없는 중국문헌 등을 참고하여 「家禮」書의 편찬에 활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여러 문헌과 학설을 고증하면서 「家禮」에 대해 보다 실용적으로 정리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깊이 있는 학문관을 짐작할 수 있다.

인용편목에 수록된 문헌 중의 다수는 직접 소장하고 있었으며,³⁷⁾ 여기에 수록

37) 인용편목에 수록된 상당수의 문헌이 목록(문화재관리국, 「瓶窩著書目錄 - 其他所藏書目 -」,

된 문헌의 수량만으로도 207편에 이르는 것을 보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책을 소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용편목 중 각 서명의 기술 방식을 보면 대체로 서명과 서명의 하단에 편저자의 국명, 편저자명 등의 순서에 의한 간단한 서지사항을 표기하였으나 그 체계가 모두 통일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명과 서명 아래의 편저자명은 대부분 표기되어 있지만³⁸⁾ 卷數는 극히 일부 문헌에만 있다. 편저자의 國名은 宋, 元 등 중국의 국명은 기입하였지만 고려나 조선 등 우리나라의 국명은 따로 기입하지 않았다.

<표 4> 引用篇目 표기 예

書名	編著者 情報	卷數
性理大全	明 胡廣 等 勅纂	
通典	唐 杜佑 作	二百卷
五禮新儀	宋 朝所 著	
家禮集說	明 馮善 著 又有 陳滿所著	
經國大典	世祖朝始之至 成宗中宗癸卯畢又有後續錄及錄	
奉先雜儀	晦齋 著	
四禮問答	門人集退溪問答	
擊蒙要訣	栗谷 著	
家禮考證	芝山 著	
家禮輯覽	沙溪 著	
喪禮備要	申義慶 著 沙溪 採擇	
深衣便考	尹孝全 著	
朱書節要	退溪 編	
東文選	盧思慎 姜希孟 徐居正 等纂 申用漑金正國金安國趙光祖等又纂續集	
源流至論	宋 儒林駟 字 德頌 著	六卷
韻府羣玉	元 陰幼遇 編	
故事撮要	魚叔權 著	
筆苑雜記	徐居正 著	
芝峯類說	李粹光 著	

1978.)에 확인되고, 수록된 문헌의 간행 시기로 보아 이형상 당시에 간행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引用篇目에 수록된 다수의 문헌은 이형상에 의해 수집되어 소장한 것이다.

- 38) 文集의 항목에는 저자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인용편목의 기술이 대부분 서명만으로 되어 있으며, 문집 외의 일부 문헌도 서명만 기록한 것이 보인다.

또한 인용편목 표기의 筆體에 있어 앞부분과 뒷부분의 흘림정도나 서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수집된 문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家禮便考」를 편찬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문헌을 수집하여 필요에 따라 목록을 표기하였다.

이형상이 편찬한 「家禮」書의 인용편목은 「家禮便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家禮訓蒙」에서도 나타난다. 「家禮訓蒙」은 1708년에 편찬을 완성한 것으로 이 시기는 「家禮」書 편찬의 초기에 해당된다.

이 책의 인용편목에는 160종의 서명³⁹⁾이 수록되었으며, 여기에는 각종 儒家書, 禮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南軒集」, 「東岡集」, 「同春集」 등의 문집과 「華嚴經」, 「金剛經」, 「大藏一覽」, 「佛經會要」, 「傳燈錄」 등과 같은 불교 문헌도 다수 수록되어 있어 禮書 뿐만 아니라 각종 문집에 수록된 관련 글과 喪禮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불교문헌을 두루 참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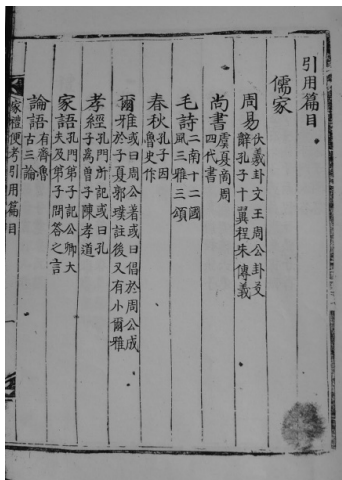
<표 5> 「家禮訓蒙」에 수록된 文集과 佛教文獻

文集	南軒集, 東岡集, 同春集, 柳州集, 眉叟集, 白香山集, 三蘇文集, 西山集, 西厓集, 蘇齋集, 旅軒集, 牛溪集, 愚伏集, 栗谷集, 芝山集, 昌黎集, 退溪集, 圃隱集, 寒岡集, 晦齋集
佛教文獻	華嚴經, 金剛經, 大藏一覽, 佛經會要, 傳燈錄, 龍湖手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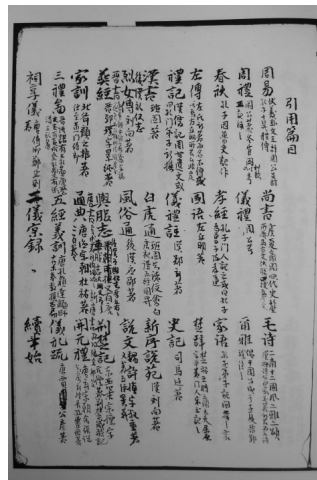
39) 周易, 尙書, 毛詩, 周禮, 儀禮, 舜雅, 春秋, 孝經, 家語, 左傳, 國語, 楚辭, 禮記, 儀禮註, 史記, 漢書, 白虎通, 新序說苑, 烈女傳, 晉書, 唐書, 後漢永儀志, 風俗通, 說文, 葬經, 輿腹志, 荊楚記, 家訓, 通典, 開元禮, 三禮圖, 五經義訓, 儀禮疏, 祠享儀, 二儀實錄, 續半始, 昌黎集, 通鑑, 綱目, 後漢書, 名臣言行錄, 書儀, 厚終禮, 儀禮經傳通解, 儀禮圖, 古今祭式, 三家禮範, 祭儀, 理窟, 家禮附註, 家禮補註, 通禮, 義門家儀, 新禮, 五禮新儀, 禮閣新編, 禮書, 祀先儀, 事物紀原, 四傳春秋, 性理群書, 小學集傳, 小學圖, 鷄林王路, 筆談, 涑水記聞, 客談, 談叢, 聞見錄, 困和記, 居業錄, 師友談記, 塵史, 二程全書, 朱子大全, 朱子語類, 南軒集, 西山集, 東坡集, 白雲囊, 支言集, 文山集, 四書章圖, 事文類聚, 韻府群玉, 家禮辨, 世史類編, 性理大全, 名臣言行錄, 伊洛淵源, 稽古定式, 大明會典, 大明集禮, 儀節家禮, 家禮會成, 家禮集說, 家禮集覽, 家禮會要, 字彙, 海篇心鏡, 讀書錄, 素門, 華嚴經, 金剛經, 大藏一覽, 佛經會要, 傳燈錄, 龍湖手鑑, 譯語指南, 四聲通解, 漢語錄, 蒼梧雜志, 三才圖說, 釋名, 列聖誌狀, 經國大典, 五禮儀, 治平要覽, 三綱行實, 國朝儒先錄, 考事撮要, 東文選, 陽村集, 佔畢齋集, 彝尊錄, 靜菴集, 晦齋集, 奉先雜儀, 退溪集, 理學通錄, 喪祭禮問答, 濯纓集, 高峯集, 西厓集, 寒岡集, 五先生禮說, 五服沿革圖, 蘇齋集, 東岡集, 愚伏集, 栗谷集, 擊蒙要訣, 沙溪集, 喪禮備要, 家禮輯覽, 疑禮問解, 芝山集, 家禮考證, 四禮問答, 旅軒集, 深衣便考, 深衣別集, 四禮訓蒙, 家禮諺解, 眉叟集.

인용편목의 기술 방식은 儒家, 禮家, 史家, 文集, 雜家 등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한 「家禮便考」와는 달리 항목 없이 서명을 나열하였으며, 각 서명의 아래에는 간략한 편저자명 등이 표기되었다.

「家禮訓蒙」에 인용된 문헌 160종을 「家禮便考」의 인용편목과 비교해보면 두 책에 중복되어 있는 문헌이 80종이고, 「家禮便考」에만 있는 문헌이 126종, 「家禮訓蒙」에만 있는 문헌이 70종으로 나타나 「家禮訓蒙」의 편찬 완성 시기인 1708년 이전부터 상당한 양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후 「家禮便考」의 완성 시기인 1725년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의 문헌을 수집하여 참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家禮便考」



「家禮訓蒙」

<그림 2> 「家禮便考」 「家禮訓蒙」의 引用篇目 第1面

「家禮便考」와 「家禮訓蒙」의 인용편목을 비교해보면, <표 6>과 같이 수록된 문헌의 수는 「家禮便考」 207종, 「家禮訓蒙」 160종이고, 항목의 분류는 「家禮便考」는 5분류로 되어 있으나 「家禮訓蒙」은 일정한 주제별 분류가 없다.

<표 6> 「家禮便考」와 「家禮訓蒙」의 引用篇目 비교

구분	編纂時期	收錄文獻數	主題分類	表記方式
「家禮便考」	1707-1725年	207	5분류(儒家, 禮家, 史家, 文集, 雜家)	서명- 편저자정보 (불규칙)
「家禮訓蒙」	1708年	160	없음	서명- 편저자정보 (불규칙)

<표 7> 「家禮便考」, 「家禮訓蒙」의 引用篇目

<p>「家禮便考」의 引用篇目과 중복된 文獻(126種)</p>	<p>家禮考證, 家禮諺解, 家禮輯覽, 家禮會成, 家禮會要, 家語, 綱目, 開元禮, 擊蒙要訣, 經國大典, 考事撮要, 國語, 唐書, 大明集禮, 大明會典, 東岡集, 明名臣言行錄, 毛詩, 聞見錄, 眉叟集, 白虎通, 奉先雜儀, 四禮問答, 事文類聚, 事物紀原, 四書章圖, 祀先義, 四聲通解, 三禮圖, 喪禮備要, 尙書, 西山集, 西厓集, 書儀, 釋名, 說文, 性理大全, 性理羣書, 世史類編, 蘇齋集, 續事始, 涑水記聞, 深衣別集, 深衣便考, 輿服誌, 烈女傳, 列聖誌狀, 禮記, 五禮新儀, 五服沿革圖, 龍湖手鑑, 愚伏集, 韻府羣玉, 栗谷集, 儀禮, 疑禮問解, 伊洛淵源, 二儀錄, 二程全書, 理學通錄, 字彙, 祭儀, 周易, 朱子大全, 芝山集, 昌黎集, 蒼梧雜誌, 春秋, 通鑑, 通典, 退溪集, 風俗通, 筆談, 寒岡集, 漢書, 漢語錄, 荊楚記, 晦齋集, 孝經, 後漢書</p>
<p>「家禮訓蒙」의 引用篇目에만 있는 文獻(70種)</p>	<p>家禮辨, 家禮補註, 家禮附註, 家訓, 客談, 居業祿, 稽古定式, 鷄林王路, 古今祭式, 高峯集, 困和記, 國朝儒先錄, 金剛經, 南軒集, 談叢, 大藏一覽, 讀書錄, 東坡集, 旅軒集, 文山集, 白雲藁, 佛經會要, 沙溪集, 史記, 四禮訓蒙, 師友談記, 四傳春秋, 事享儀, 三家禮範, 三綱行實, 三才圖說, 喪祭禮問答, 素門, 小學圖, 小學集傳, 新禮, 新序說苑, 陽村集, 譯語指南, 禮閣新編, 禮書, 五經義訓, 五禮儀, 五先生禮說, 儀禮經傳通解, 儀禮圖, 儀禮疏, 儀禮註, 義門家儀, 儀節家禮, 理窟, 彝尊錄, 葬經, 傳燈錄, 佔畢齋集, 靜菴集, 左傳, 周禮, 朱子語類, 支言集, 楚辭, 治平要覽, 濯纓集, 通禮, 海篇心鏡, 華嚴經, 厚終禮, 再雅, 塵史</p>

6. 結 言

이형상은 「家禮」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오던 중 영천 浩然亭에 기거했던 1707년(55세)부터 여러 관련 문헌을 두루 참고하여 본격적으로 「家禮」書 편찬을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이형상이 편찬한 「家禮」書에 대해 서지적으로 살펴보고, 편찬의 동기와 시·공간적 배경, 인용편목의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家禮」書 편찬은 그가 청년 시절에 보았던 禮訟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혼란에서 비롯된 禮學에 대한 잠재적인 학문적 관심과 탐구의욕이 있었을 것이라 보여진다. 또 당시 예학의 발달은 학자들에게 「家禮」書의 저술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家禮」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학문적인 의무감 등이 내적으로 존재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개인적인 편찬 의도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나 後學, 나아가 모든 이들이 「家禮」에 대한 편리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즉, 그가 「家禮」書를 편찬한 배경에는 그의 학문적 의지와 집념과 함께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禮學 연구가 유행하였던 시대적 배경과 「家禮」 연구가 활발했던 지역인 영천, 은거지이자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의 장소인 ‘浩然亭’이라는 공간적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낸 업적이라 하겠다.

「家禮便考」의 引用篇目에는 다양한 주제의 문헌 207종이 수록되어 있어 그의 깊이 있는 학문관을 볼 수 있으며, 그는 각종 국내외 문헌과 학설을 考證하면서 「家禮」에 대해 실용적이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家禮訓蒙」에 인용된 서명 160종을 「家禮便考」의 인용서명과 비교해보면 두 책에 중복되어 있는 문헌이 80종이고, 「家禮便考」에만 있는 문헌이 126종, 「家禮訓蒙」에만 있는 문헌이 70종이다. 이것은 「家禮訓蒙」의 편찬 완성 시기인 1708년 이전에도 상당한 양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인용편목에 수록된 상당수의 문헌은 근래에까지 전해졌으며, 이형상 당시에 간행된 것이 많아 이형상이 직접 수집한 것을 소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家禮圖說」.

「家禮附錄」.

「家禮便考」.

「家禮或問」.

「家禮訓蒙」.

「瓶窩集」.

權寧徹. 「瓶窩 李衡祥 研究」. 서울: 범우사, 1978.

權鎮浩. “嶺南學派의 「朱子家禮」 수용 양상 - 東巖 柳長源의 「常變通攷」을 중심으로 -.” 「國學研究」 第16輯(2010). 469-500.

文化財管理局. 「瓶窩著書目錄」. 서울: 문화재관리국, 1978.

宋熹準. “18世紀 永川 地域의 「家禮」 註釋書에 대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第28輯(2000). 249-276.

宋熹準. “永川·慶州 地域 禮學者들의 「朱子家禮」 探究와 그 施行.” 「東洋禮學」 第5輯(2000). 35-97.

오용원. “瓶窩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研究.” 「퇴계학과 한국문화」 第37輯(2005). 177-209.

李秀吉. “慶州府尹 瓶窩 李衡祥의 생애와 업적.” 「경주문화」 통권 제11호(2005). 82-100.

張東宇. “「朱子家禮」의 수용과 보급과정 - 東傳版本을 중심으로 -.” 「國學研究」 第16輯(2010). 184-18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譯 瓶窩集」.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瓶窩全書」.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